

2026년 3월 5일 1분기 선교보고

안녕하세요. 한신 선교사입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저희 선교지를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한재동 위임 목사님과 모든 가포교회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늘 잔잔하지만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자리이기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정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기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불란 하우스 교회

시불란 하우스 교회는 최근 많은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 비교적 역량이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시험과 도전도 적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확장될수록 영적인 긴장 또한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이단 단체들의 활발한 전도 활동으로 인해 마을 전체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혼란을 겪으며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건강한 기독교 단체의 전도 활동이 이어지면서, 지역 안에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반전의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혹여라도 같은 기독교 단체 간에 불필요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나 시기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다짐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되, 서로를 경계하기보다 격려하며,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하도록, 서로의 역량을 모아 하나가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겸손한 연합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부카드 하우스 교회

필리핀의 특성상 연초가 되면 각 학교의 행사와 활동이 집중되다 보니, 학생들이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 한편에 적지 않은 아쉬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예배에 모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을 이유로 삼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부터 더 애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심방과 지속적인 영적 돌봄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으고, 형식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조건이 완벽해져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캠부카드 하우스 교회는 특별히 예배 공간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현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이 함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외적인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 안토니오 하우스 교회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면 혹시 분위기가 더 가라앉지 않을까 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공동체가 더 활력을 얻고 예배의 열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을 넘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동안 지속되던 가톨릭 사제 측의 예배 반대 움직임도 현재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요즘은 이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숭배의 영향이 특히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장 큰 부담과 긴장 속에서 사역하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고 있어, 그 변화 자체가 큰 은혜로 느껴집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 압박이나 외적인 제약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보다 예배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릴리 하우스 교회

이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로젤매 성도님의 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할머니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장례 절차가 보통 2주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소천하시기 두 달 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이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가톨릭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숙소를 예배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포페리아 피어러 성도님의 믿음의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장례 기간 중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로젤매 성도님의 집을 예배처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 상황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4년 이상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동역자들의 기도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아온 믿음의 시간이 오늘의 안정으로 이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로젤매 성도님의 집을 성경공부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예배와 모임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시는 로젤매 성도님과 자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한재동 위임 목사님과 가포교회의 모든 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한신 선교사 드림 -

26년 1분기 선교활동 사진 - 고척교회 조재호 원로 목사님, 정선희 사모님, 마닐라 이동식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



캄부카드 가정 교회 예배 모습 1. (2월 24~27일)



캄부카드 가정 교회 예배 모습 2. (2월 24~27일)



산 안토니오 가정 교회 예배 (2월 24~27일)



산 안토니오 가정 교회 평일 심방 (2월 초)



발릴리 가정 교회 예배 (2월 24~27일)



발릴리 가정 교회 예배 (2월 24~27일)



발릴리 가정 교회 예배 후 가정 집 심방 (2월 24~27일)



시불란 가정 교회 홈 커밍 데이 예배 1. (2월 24~27일)



시불란 가정 교회 홈 커밍 데이 예배 2. (2월 24~27일)



시불란 가정 교회 행사 후 가정(시불란 가정 교회 예배 장소) 심방 (2월 24~27일)



각 지교회 교사 모임 후 (2월 중)



자녀들 학교 발표회 두마게티 시청 앞에서 발표 (2월 16일)



필리핀 제일 선교사 모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선교사) (25년 12월 29~30일)



발릴리 포페리아 피어러 성도님 장례예배 인도 (26년 1월 15일)



발릴리 가정교회 주일 예배 후 예배에 참석 못한 교인 방문 심방 (3월 1일)